

**IFES**

# 뉴스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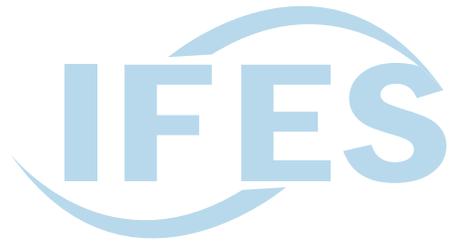
2024년 2월호

IFES NEWSLETTER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뉴스레터  
17호(2월)  
목차

## 연구활동

---

1. 학술활동	3
2. 발간활동	10
3. 교수 연구활동	11
4. 교수 논문·기고문 등	13
5. 북한 정세 동향	14

## 연구소 소식

---

1. 연구소 동정	19
2. 언론 속의 IFES	21
3. 추천 도서	27
4. 안내사항	29



---

## 연구활동

연구활동



# 1. 학술활동

## 국내학술회의

### 제73차 통일전략포럼 (2024. 1. 10.)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월 10일(수) '제73차 통일전략포럼'(평화관 1층 대회의실)을 개최했다. "2023년 북한 정세평가 및 2024년 전망"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통일전략포럼은 북한의 △정치·외교 △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총 4개의 세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주제인 '북한 정치·외교 분야 평가 및 전망'에서 발표자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김정은이 얼마나 오래 건강을 유지하며 지원할 수 있을지에 따라 김주애 후계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 했으며, "북한은 올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중국과는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토론자인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주애의 등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승계 문제를 거론해 전당, 전국가, 전사회적 차원에서 후계 임무를 완성해 나갈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제2주제인 '북한 군사 분야 평가 및 전망'에서 발표자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올해 미국 대선이나 남한 총선보다 북중, 북러 관계가 한반도 정세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쳤다. 또한 "9.19 군사합의 파기 이후 군사 충돌 가능성이 점증했다"고 보았으며, "올해 제7차 핵실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토론자인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러시아의 대북 군사지원은 플랫폼 구축과 우주개발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 했으며, "군사도발은 한미연합훈련에 맞대응 훈련의 형태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북한에게 핵실험보다는 투발수단 개발이 시급한 사안이므로 핵실험을 하기까지 정치적 고려가 우선시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제3주제인 '북한 경제 분야 평가 및 전망'에서 발표자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023년 북한 경제는 2022년보다 악화된 징후를 찾기 어렵다"고 평가했으며, 올해 "북한경제에는 내부 정책 요인보다 대북 제재 또는 중-러의 대북지원 등 대외적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토론자인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2023년에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대외무역 회복 등 경제 상승 요인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올해 대북제재가 추가될 가능성이 낮아 부정적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 했지만, "자연재해 발생 여부를 향후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 1. 학술활동

마지막 제4주제인 ‘북한 사회·문화 평가 및 전망’에서 발표자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023년 북한 사회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 ‘사회주의 애국주의’와 ‘우리국가제일주의’가 강화되었다”고 평가했으나, “북한 체제를 변화하려는 경제·사회·문화 등 구조적 요인들도 공존해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 충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토론자인 이형중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역 및 도농 불균등을 2023년 북한 핵심 문제 중 하나였다”고 파악하며,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는 불안정한 민심을 달래고 내부적 불안요소를 외부로 전가하려는 기조가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평가했다.

이관세 소장은 “이번 통일전략포럼은 북한의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결산·평가하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계획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논의하는 자리였다”며, “2024년은 그 어느해 보다 불확실하고 격동적인 한해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美대선, 한국 총선, 대만 총통선거 등 정치적 변동과 북·중·러의 연대 강화 등으로 한반도 정세는 매우 유동적인 상황으로 철저한 대비와 함께 복합적인 요인들을 타개할 수 있는 전략적 대처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 발표·토론 전문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람.

## 공동연구

제6차 공동연구회 개최  
(2024. 1. 22.)

- 일자/장소: 2024년 1월 22일(월),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
- 참석자: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장,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정재욱**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박서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주요 내용: △중국의 핵무장력 평가와 전망(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AUKUS는 순항할 것인가?: AUKUS 순항의 위협 요인(정재욱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핵 문제의 경과 분석에 대한 시론적 연구: 이해 당사국 상호관계를 중심으로(최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각각 발표
- 추진 경과
  - 전체 주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핵의 국제정치
  - 세부 주제로 △NATO의 핵공유·핵협의 제도('23.6.26.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한국의 핵정책 과제와 대응전략: 저농축 중심의 핵연료주기 필요성과 확보전략('23.7.24.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워싱턴 선언 관련 미국 행정부, 의회, 싱크탱크의 최신 동향 수집('23.8.30. 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 연구위원)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핵 정책('23.10.4. 이웅현 고려대 세계지역연구소 연구교수) △일본 핵정책의 쟁점과 과제('23.10.16.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각각 발표하였음.

### 세미나

## 북한심층연구 라운드테이블 (2024. 1. 23.)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월 23일(화) 비공개 ‘북한심층연구 라운드테이블’(평화관 1층 대회의실)을 개최했다.

“김주애는 과연 후계자 가능성이 있나?”를 주제로 열린 이번 비공개 라운드테이블은 곽길섭 원코리아 센터 대표, 엄현숙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이 발표하였고, 이관세 소장, 임을출·조진구·이형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토론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 정권이 김정은의 딸 김주애를 등장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치적 기대 효과와 앞선 두 번의 후계 세습과의 비교분석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또한 현재 단편적으로 드러난 북한 ‘4대 세습’ 가능성을 가십성 논쟁거리로 소모하기보다는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 이후 북한 김정은 체제 변화의 측면에서 깊이 있게 분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세미나

북한문제 전문가 비공개 라운드테이블  
(2024. 1. 25.)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월 23일(화) 북한대학원대(총장 양무진)과 함께 ‘북한문제전문가 라운드테이블’(평화관 1층 대회의실)을 개최하였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의 사회를 맡은 양무진 총장은 “경남대 북한대학원에 뿌리를 둔 북한대학원대는 극동문제연구소와 한 몸”이라고 설명하며 “북한·통일연구의 메카로서 극동문제연구소의 연구기능과 북한대학원대의 교육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북한연구 활성화와 전문가 교류를 이어갈 것”이라며 회의 개최 의의를 밝혔다.

회의에서는 이준식 현대그룹 전무가 “북한 노동당 규약과 헌법의 관계”, 이철 평화재단 선임연구위원이 “북한의 대외무역정책과 제도 변화: 김정일 정권과 김정은 정권의 비교 연구”, 이경희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통한 한반도 탄소중립 구현 방안: 파리협정 제6.2조에 기반한 남북협력 가능성 모색과 이행체계 연구” 등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최설굿파머스 연구원, 하승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초빙교수가 토론하였다.



### 세미나

## 제15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캐나다대사관 공동 라운드테이블 (2024. 1. 26.)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주한 캐나다대사관과 공동으로 1월 26일(금) 주한 캐나다대사관 회의실에서 제15차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24년 북한 정세 평가 및 전망'을 주제로 한국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관 담당자들이 모여 북한 현안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논의했다.

이관세 소장은 '8기 9차 전원회의 특징 및 평가: 두 국가론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통해 금번 회의는 대남노선의 근본적인 전환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며, 두 개 국가론의 부상과 독일사례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또한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군사·안보 평가, 북러 군사협력 및 북한 7차 핵실험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북한은 한반도 내 사용 가능한 핵무력의 실전화에 집중하며 그 결과로 한반도 평화실종과 군사적 긴장이 도래했다고 평가했으며, 한반도 군사위기와 관련하여 한반도에서 주도권 확보 및 내부결속 에 필요한 수준에서 위협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단올렛 부소장, 임을출 교수, 최영준 교수 및 주한 대사관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한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북미일 삼자협력', '미 대선과 북미관계 전망',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 대한 평가', '한국의 유엔안보보장이사회 재진입', '북한의 경제 및 사회'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 포럼

제5차 삼청포럼  
(2024. 1. 31.)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월 31일(수) 평화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5차 삼청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문흥호 교수(한양대 국제대학원 중국학과 명예교수)가 “대만총통선거 결과와 양안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문 교수는 발표에서 대만의 경우 “어떤 당이 당선되든 사실 양안관계에 큰 영향이 없다”며 “양안관계는 미국과 중국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도 대국관계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재 미중관계는 군사안보적으로 조정 단계로 들어서면서 대만해협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양안관계는 인적 교류와 경제협력이 매우 긴밀하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을뿐더러 동족상잔의 전쟁은 시진핑의 국내정치적 정당성도 흔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대만의 대외관계 전망에 있어서 “민진당 정부는 미국 경사가 불가피하다”면서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이후의 미중관계와 ‘트럼프 변수’에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보면서 “라이칭더 집권 기간 동안 중국이 대만의 국제 생존 공간을 차단할 것”으로 예상하며 “대만의 ‘정식 수교국’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대만해협과 한반도의 연계가 긴밀하다며 전쟁의 가능성은 낮지만 다양한 범위의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다며 한국은 이에 대한 위기관리와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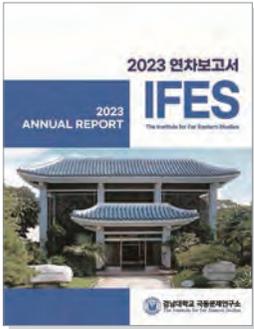
발표 후 포럼에 참석한 연구소 교수진, 전문가, 학생 등의 많은 질의가 이어졌으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2. 발간활동

### 2023 연차보고서

## 2023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차보고서 (2024. 1. 15.)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2023년 학술·연구 활동 등의 결과를 정리·기록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특히 2023년은 학술활동, 학술·연구 결과물, 대외교류 및 연구 활동, 해외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사업 외 신규 사업으로 ▲삼청포럼 ▲『북한의 핵 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교재 집필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성과들을 총 정리하여 『2023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 관련한 연구기관·정부 등에 책자 배포와 함께 책자 파일을 온라인으로 배포 하였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도 게재 하였다.

### < 목 차 >

- 연구소 소개
- 학술활동
  - 학술회의 | 라운드테이블·워크숍 | 삼청포럼
- 학술·연구 결과물
  - 북한 교재 발간
  - 학술지 | 단행 연구서 | 한반도 포커스
- 대외교류 및 교육활동
- 해외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사업
- 도서관 소식

## 3. 교수 연구활동

### 학술활동

#### 임을출 교수

1. 2024. 1.26.(금) 美 조지워싱턴대학 주최 <NK Economic Forum> 발표  
- 내용 : '2023년 북한 경제 실적 평가 및 2024년 전망' 설명

#### 조진구 교수

1. 2024. 1.18.(목) 합동참모본부, '2024년 전략적 억제평가 추진 계획 회의' 참석
2. 2024. 1.30.(화) 민주평통 국제협력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발표

#### 이형종 교수

1. 2024. 1.23.(화) 부천일심지원센터 자문
2. 2024. 1.31.(수) 제3차 한국학 포럼 토론 발표

#### 김상범 교수

1. 2024. 1.29.(월) (IFES 브리프) '북한의 두 개 국가론 선언 평가 및 전망'

#### 안호영 초빙석좌교수

1. 2024. 1.11.(목) 국방부장관 초청('한반도 평화 만들기') 간담회 참석·토론  
- 내용: NCG가 가이드라인 마련 후 이에 기초한 Operation Plan까지 만들고 3축 체제를 조기 완성하며, 미국 전략사에 우리 장교단을 파견하여 정보 교환을 촉진할 것을 제안
2. 2024. 1.12.(금) 국제경제 연구원 (IGE) 후카가와 교수 초청 세미나 참석·토론  
- 내용: 한일 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공동의 도전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도전 해결을 위한 제도화 확대 방안 제시

### 3. 교수 연구활동

---

## 언론활동

### 임을출 교수

1. YTN '뉴스큐' 출현
  - 일자: 2024. 1.16.(화)
  - 내용: 김정은 “한국, 불변의 주적”... 남북 ‘강대강’ 대치 이어지나?

### 이상만 교수

1. '중국망' 중국 언론 매체 기고
  - 일자: 2024. 1. 8.(월)
  - 내용: 2024년 중국경제 전망
2. 코리아 헤럴드·데일리안·이데일리·뉴스1 인터뷰
  - 일자: 2024. 1.13.(토)
  - 내용: 대만총통 선거 결과 등

### 조진구 교수

1. 아주경제 칼럼 기고
  - 일자: 2024.1.9.(화)
  - 내용: 강대강 충돌위기 한반도, 남북 간 대화는?

### 안호영 초빙석좌교수

1. 한국일보 “안호영의 실사구시” 기고
  - 일자: 2024.1.8.(월)
  - 내용: “핵 협의 그룹: 새해에 거는 기대” 제하에 NCG가 가이드라인 마련, 훈련 강화, 양질의 핵 관련 정보 교환을 통해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
2. 코리아 타임스, 기고
  - 일자: 2024.1.17.(수)
  - 내용: “Nuclear Consultation Group: what is to be done in the new year?” 제하에 NCG가 가이드라인 마련, 훈련 강화, 양질의 핵 관련 정보 교환을 통해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

## 4. 교수 논문·기고문 등

### 논문(요약)

#### “AUKUS는 순항할 것인가: AUKUS 순항의 위협 요인.”

저자: 정재욱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원자력전략정책저널』 제1권 2호, 2023.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 간 안보 협력체인 AUKUS가 향후 30년 후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선단을 제공한다는 장기적 목표를 향해 순항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검토한다. 협력의 위협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2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 요인은 구조적 요인으로 미중 간 갈등의 완화이고, 두 번째는 국내적 요인으로 특히 핵심기술을 제공하는 미국과, 향후 3860억 달러에 이르는 재정을 투자하는 호주에서의 국내정치적 변화이다.

구조적 요인의 측면에서, AUKUS 형성의 기반이 되었던 미중 경쟁의 부분적 해소는 AUKUS의 응집력을 약화시키는 원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하게는, 이 AUKUS의 협력은 30년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선호의 변화문제에 취약할 수 있다. 즉 이 기간 동안 미국과 호주는 많은 국내정치적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국내정치적 변화는 AUKUS 협력 유지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IFES브리프(요약)

#### 북한의 두 개 국가론 선언 평가 및 전망

저자: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2024. 1. 29.

남북을 특수관계로 규정함으로써 야기되는 이중잣대의 문제를 자주권 침해 행위로 인식, 이를 제거하고 최고지도자 및 체제 생존을 위해 철저히 국가이익에 기반해 남북관계를 운영해 가겠다는 의지

2023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및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 대남노선의 전면적 전환을 발표한 이유는 2024년 한미 간 역대 최대의 군사훈련 예정에 대한 대응 차원,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총력전 독려 및 대남관계 부분 법·제도적 정비 목적

선대 수령들의 통일·대남정책의 비현실성과 한계를 지적하고 그들의 업적으로부터 관련 영역을 철저히 분리, 이행해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 지도자들로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권능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

## 5. 북한 정세 동향

### • 12/26~12/30 북한 당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개최

- (대남·대외)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 전쟁 중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 통일전선부 등 대남기구 정리 ▲반제 자주적 나라들과 관계 발전 ▲강대강·전면승부의 대미 대적투쟁원칙 견지
- (경제·사회) ▲'12개 중요고지' 목표 달성 ▲학생 교복·가방 생산 및 공급
- (국방) ▲핵무기 생산 증대 토대 구축 및 미사일 개발·생산 ▲2024년 3개 정찰위성 추가 발사 ▲해군의 수중 및 수상전력 제고, 미진 과업 빠른 기간 내 집행 ▲무인 항공장비·전자전수단 개발 ▲민방위무력 훈련 혁신
- (정치) ▲국가사회제도 발전 관련 인민주권기관, 검찰·사회 안전기관 등 법기관 정책적 과업 ▲근로단체사업 조직전개 실천

### • 1/14 북한 미사일총국,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전투부 장착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발표 (노동신문, 1/15)

### • 1/15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개최(노동신문, 1/16)

- ▲‘대한민국 제1의 적대국’ 헌법 명기 예고 및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대남기구 폐지 결정 ▲대외 반제연대 공동투쟁 강조
- ▲‘지방발전 20×10정책’ 등 사회주의건설 분야별 과업 제시 ▲기간공업 현대화: 기계공업 강조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등 건설사업 ▲인민생활향상 과업으로 농사 특히 중시 ▲교육·보건 선진화

### • 1/14~1/18 북한 최선희 외무상 방러, 푸틴 러시아 대통령 면담(노동신문, 1/21)

-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방북 요청, 푸틴 수락 ▲북러 관계 “새로운 법률적 기초” 관련 합의

### 〈한반도 정세 관련 해외 전문가 논평〉

- 뤼디거 프랑크 (비엔나대): 북한이 당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대남·통일정책 노선을 변화시킨 데 대해 “남한을 외국 국가로 분류하는 북한의 시각 변화는 충돌의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평가(38North, 1/11)
  
- 지그프리드 헤커·로버트 칼린(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 “김정은이 전쟁을 시작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릴 조짐이 있다”라고 평가하며, 북·중 및 북·러 밀착이 군사적 방법을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 특히 대규모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북한이 한미의 억제전략에 대한 계산을 무시하고 취약점을 공격할 징후가 있다고 경고(38North, 1/11)
  
- 토마스 세퍼(前 주북독일대사): 칼린과 헤커의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 위험 증가’ 평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이것을 북한 대외노선의 근본적 변화로는 볼 수 없다고 논지를 펼침. 최근의 선전(대외공세)은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이후 변화한 노선이 아니라 미국 대선과 관련이 있으며, 북한은 미국 공화당의 승리를 통한 목표 달성을 원하며, 미 대선 이후까지 계속해서 긴장을 고조시킨 후에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38North, 1/17)
  
- 로버트 갈루치(前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 ‘2024년 동북아시아 핵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 시나리오 중 하나로 미·중 양국이 대만문제를 놓고 대치하는 동안 북한이 동북아의 미국 자산과 동맹에 핵 위협을 가하는 상황을 상정(National Interest, 1/17).



---

## 연구소 소식





# 1. 연구소 동정

## ■ 박재규 경남대 총장, 역대 통일부장관 신년 인사회 참석 (2024. 1. 8.)

- 일자/장소: 2024년 1월 8일(월), 롯데호텔
- 참석자: 박재규 경남대 총장, 손재식·이흥구·강인덕·현인택·류우익·홍용표 前 통일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 내 용: 최근 한반도 정세와 향후 통일정책 방향에 대한 경험과 고견을 나눔



## ■ 2024년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2024. 1. 9.)

- 일자/장소: 2024년 1월 9일(화),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
- 참석자: (내부 위원) 이관세 소장, 단올렛 부소장, 조진구 연구실장, 모영환 행정관리실장  
(외부 위원) 유영수 북한대학원대 교수, 장철운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내 용: 2023년도 사업실적 및 2024년도 사업 계획과 연구소의 조직 개편 및 보직 임면 내용 등

## 1. 연구소 동정

### ■ 박재규 경남대 총장, 양광중 대만대표부 대표와 간담회 (2024. 1. 17.)

- 일자/장소: 2024년 1월 17일(수)
- 참석자: (경남대) 박재규 총장, 이관세 소장, 이상만 중국어센터장  
(대 만) 양광중 대만대표부 대표, 장운자·임완옥 서기관
- 내 용: (박재규 총장) 한국과 대만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희망하면서 금년 봄 대만에서 개최되는 경남대·중국문화대·소카대 등 3개 대학 평화포럼 관련 협조 요청  
(양광중 대표) 한국과의 경제안보문제 협력에 관심을 보이며, 한국이 대만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데 힘이 되어주길 기대



### ■ 연구소 브로슈어 발간(4개국 언어) (2024. 1. 30.)



- 발간 목적: 국내외 네트워크 확장과 연구소 홍보를 위해 국문·영문·중문·일문 등 4개국 언어로 제작 발간
- 구성 내용: 연구소의 설립 목적 및 주요 활동사항, 조직 구성, 주요 학술교류 협력기관, 학술 활동, 교육 활동,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 등

## 2. 언론 속의 IFES

### ■ 제73차 통일전략포럼 결과(2024. 1. 10.)

#### ‘2023년 북한 정세평가 및 2024년 전망’ 통일전략포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73차 통일전략포럼 © 제공: 연합뉴스〉

※ 연합뉴스 외 총 17건 언론보도

### ■ 제5차 삼청포럼 결과(2024. 1. 31.)

#### [경남대 극동研] 대만해협, 일촉즉발인가?... “미중관계 조정 중, 전쟁 가능성 낮아”



〈제5차 삼청포럼에서 발표 중인 문흥호 한양대 명예교수〉 〈출처 : SPN 서울평양뉴스〉

■ 박재규 경남대 총장 The Korea Times 인터뷰 전문(2024. 1. 22.)

※ The Korea Times 인터뷰(2024. 1. 22. 4면) 전문을 국문으로 번역한 자료임.

[인터뷰]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다각적 전략 필요’



〈 코리아타임스와 인터뷰 중인 박재규 경남대 총장 〉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 ‘북한, 중국, 러시아 중 어느 한 나라도 적대시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돼’

새해부터 남북이 인사 대신 위협과 경고를 주고받는 등 한반도 긴장이 수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고조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24년 벽두를 강화된 군사적 위협과 미사일 발사로 시작했으며, 헌법에 남한을 ‘주적’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여러 배로 강력한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를 바탕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전 통일부 장관이자 현재 경남대학교 총장인 박재규 박사는, 한국은 억제에 초점을 맞춘 현재의 일방적인 정책 대신,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향해 “다각적인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총장은 수요일 코리아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고도화 추구와 대화 거부로 윤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폭이 크게 제한되었지만, 일방적인 대북 제재·압박 정책은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할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 3국 협력의 토대를 바탕으로 억제력을 향상시켜야 해도 한국은 중국·러시아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다각적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 중 어느 한 쪽도 적대시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 총장은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 사상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주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북한 전문가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을 남북관계에 ‘매우 어려운 해’로 예상하면서 “휴전선에서의 충돌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동북아 전체의 불안정성과 맞물려 위기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완충지대를 조성해 접경지역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마련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무효화 되면서 상호 오해로 인한 ‘우발적 사태’의 위험성이 고조됐다.

박 총장은 “북한이 2020년 우리 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점을 고려하면, 최전방 지역에서 전단 살포와 확산기 방송이 재개될 경우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은 윤석열 정부가 올해 더 자주 개최하려고 하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반발하여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은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 2. 언론 속의 IFES



< 극초음속 탄두를 탑재한 고체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장면 >  
(1월 14일 조선중앙통신 보도. 연합뉴스)

박 총장은 “북한은 바이든 정부와 협상하기보다는 차기 미국 정부와 협상할 생각으로 선거 결과를 기다리며 강경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전략 실패를 부각하기 위해 북한이 정상 각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거나, 심지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과 3국 협력을 강화하려는 윤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박 총장은 예상했다.

그는 “현재 미국 외교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라며, “트럼프가 당선 되면 3국 협력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맹에 대한 트럼프의 회의적인 태도와 다자 협력을 기피하는 성향을 고려할 때, 그의 임기 중에 3국 관계는 약화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의 또 다른 주목할 점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다.

최근 우호적인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북한의 최고위급 외교관인 최설희가 지난 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양국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심화는 한국과 서방 국가들로부터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은 북러 간 군사 협력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박 총장은 “러시아가 국제사회와의 관계와 규범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신, 러시아와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경제협력에 집중해 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화요일(현지 시간) 모스크바에서 최설희 북한 외무상을 만났다 >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의 행보는 북러 관계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는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밀착을 환영할 가능성은 낮다”며 “이들 두 나라와의 3자 연대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을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으며, 중국의 핵심 이익을 훼손할 정도로 한반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 2. 언론 속의 IFES

일각에서는 고조되는 남북 갈등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의 '신냉전'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박 총장은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신냉전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경쟁 관계는 과거 소련과 미국의 냉전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전의 미·소 관계가 이념 노선에 따른 양극적 분열과 극단적인 대립의 특징이 있었다면, 현재 미·중 경쟁의 목적은 상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두 초강대국은 양국 및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공통의 정치적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박 총장은 말했다.

그는 또 미·중, 한·중 및 중·일 관계가 때때로 대립하지만, 이들의 경제가 상호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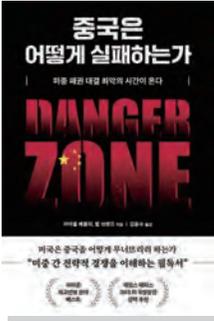
한중일 3국 관계에 대해 박 전 장관은 올해 상반기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에 회의적이었다.

그는 “이들 사이의 미묘한 양자 관계 외에도 3국의 국내 정치도 정상회담을 지연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박 총장은 “한국의 총선은 4월에 치러질 예정이고, 중국의 양대 정치 모임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월로 예정돼 있어 그 전에 중국 정부가 신속한 행보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 3. 추천 도서

## Danger Zone



저 자: 마이클 베클리, 할 브랜즈

번 역: 김종수

출간일: 2023. 2. 6.

Danger Zone: The Coming Conflict with China by Michael Beckley & Hal Brands, W. W. Norton & Company Aug. 16, 2022.

트럼프 정부에서 촉발된 미중 무역 전쟁이 바이든 정부 들어 기술, 경제, 안보, 이념 등 전방위 전선에서 미중간 사활적 대결로 격화되고 있다. 이 책은 오랜 기간 중국과 미중 관계를 연구해 온 두 미국 학자가 보는 미중 전략적 경쟁의 향후 전망과 대책을 담고 있다. 미중 전략적 경쟁이 글로벌 질서의 화두가 되면서 이를 다룬 연구서가 적지 않게 출판되고 있으나, 이 책은 다른 연구 성과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몇 가지 차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중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저자들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70년대 말 개혁개방 이후 장기간에 걸쳐 눈부시게 발전해 온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돼 온 점을 감안하면, 꽤 파격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저자들은 공산당 독재의 정치 논리로 중국 경제의 비효율성이 고착되고, 자원고갈과 환경 문제가 악화되며,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 2030년 무렵에는 중국이 세계 150여개 국가에 제공한 차관 대부분의 상환기일이 도래하는데, 중국 스스로도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채무 국가에 대한 압류라는 어려운 정치적 조치 대신 결손 처리를 해야 할 가능성이 큰데, 이것은 모두 중국 외화 자산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출산율 저하로 중국 인구가 금세기 내에 절반으로 축소되는 동시에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의 부담은 현재의 5배로 치솟는다. 한마디로 중국의 경제는 암울하고, 지속적 경제적 성장에 기초해 온 시진핑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주 저자인 베클리는 2011년에 International Security 지에 "China's Century? Why America's edge will endure," 2018년에는 Foreign Affairs 지에 "Stop Obsessing About China: Why Beijing Will Not Imperil U.S. Hegemony," 등 논문을 통해 중국의 민낯을 추적해 왔는데, 이 책에서는 결국 중국이 앞으로 안으로부터 몰락하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역자는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제목을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국의 기세가 꺾일 것으로 보았으므로, 미중 경쟁의 앞날은 미국의 입장에서 긍정적일 것인가? 대답은 예상 밖이다. 중국은 침몰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다. 베클리와 브랜즈는 빠르게 부상했던 국가가 패권국가로 도약하는 꿈이 좌절되고 몰락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1차 대전을

### 3. 추천 도서

---

일으킨 독일, 그리고 태평양 전쟁을 감행한 일본이 모두 급속한 국력의 신장 후에 라이벌 국가들의 견제와 압박에 의해 뜻을 이루지 못하는 좌절감을 맛보고 하강 국면에 직면하였을 때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였다는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진다는 정세 판단이 비록 부족하더라도 그간 키워놓은 힘을 활용해 더 늦기전에 상황을 전변시키려는 결심으로 이어진 것이며, 해당 국가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마찬가지로 중국 인민을 권위적으로 지배해 온 시진핑의 입장에서 중국의 패배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시간이 갈수록 중국의 힘이 하강하는 것을 인지한 조건에서는 중국몽을 실현시킬 기회가 더 멀어지기 전에 현상 변경을 극적으로 시도해 볼 동기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하에 저자들은 중국의 국력이 이미 정점을 지났지만, 그러한 강경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속되는 2020년대 어림잡아 10년기간을 미중간에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지대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전쟁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바로 대만이다.

셋째는 미국의 대책인데, 저자들은 복합적 대중 전략을 제시한다. 즉, 위험지대 10년간에 초점을 둔 단기 전략과 그 이후 장기 전략이 그것이다. 위험지대 기간에는 중국의 군사적 공격 가능성을 예방,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집중적이고 공세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세적 전략의 목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즉, 최종 목적은 상호 파괴적인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쟁 외 대안이 없다고 판단할 정도로 압박하고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단 위험지대를 통과한 후에는 승리는 미국의 것이므로 여유를 가지고 중국을 다루어 나가되, 어떤 성격의 중국을 원하는지 목표를 명확히 하고(예를 들면, 여전히 권위주의적 중국인지, 민주화된 중국인지) 그에 따른 정책 수단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책은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정책 방향을 논하고 있지만, 중국의 국력에 대한 평가와 미중 경쟁의 전망에 대해 신선하고 예리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어서 참고될 사항이 적지 아니하다. 특히 중국을 다루는 대책 분야에서 목적 합리성에 기초한 계산된 위험 감수 전략은 날로 악화되어 가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또한 전쟁의 원인에 대해 기존의 세력전이 이론과 패권전쟁 이론이 다루지 못한 국력 하강기의 군사적 공격 가설을 제기함으로써 국제정치학 이론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다만, 전적으로 미국의 시각에서 쓰여진 만큼 우리의 국익 관점에서 반추해 볼 여지도 상당하다. 간단한 예로 저자들은 미국이 중국을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국을 포함한 민주 동맹국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미국 정부가 이들 국가의 이익을 보호해 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만큼 국익 확보를 위한 공간이 존재하는 셈이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일부 논자들이 미중 대결 국면에서 신속하게 전략적 명료성을 보이는 것이 유리하다며, 미중 사이에서 줄을 늦게 섬으로써 배제당하지 말고 서두르자는 주장이 우리의 국익에 실제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최영준(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4. 안내사항

### 도서관 회원가입 안내

#### ● 가입안내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이메일 (pedia@kyungnam.ac.kr) 발송

#### ● 연회비 납부

일반회원: 50,000원, 학생회원: 3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재 가 입: 회비 만기일 전까지 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만기안내문 발송)

경남은행 570-07-0011980 (예금주: 경남대학교)으로 입금

#### ● 회원의 혜택

- 본 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가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와 심포지엄 등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본 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Asian Perspective와 『한국과 국제정치』, 『현대북한연구』를 포함, 보고서 및 소식지 등의 간행물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 본 연구소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대출,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본 연구소 도서관을 방문하여 미국의 공신력 있는 북한 전문뉴스 웹사이트 NK Pro([www.nknews.org/pro](http://www.nknews.org/pro))의 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가입문의

Tel. 02-3700-0725,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담당자







[IFES.kyungnam.ac.kr](http://IFES.kyungnam.ac.kr)  
[ifes@kyungnam.ac.kr](mailto:ifes@kyungnam.ac.kr)  
T. 02 3700 070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길2 (03053)